



탈항방지의 첫째의 대책은 부리자르기(Debeaking)이다.

부리자르기는 7일령부터 30일령 사이에 반드시 실시하고 100일령경(12~17주령 사이)에 두번째로 디비킹을 해 준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병아리때 디비킹된 것은 중, 대추기에 항시 관찰을 하여 아랫부리와 윗부리의 차이가 심하여 모이 먹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잘 다듬어 주도록 한다. 이것을 그냥 둔채로 제한급이 까지하면 이런 닭은 폐계가 되기 쉽다. 초산시기에 상하 부리가 잘 다듬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노계기가 되면 아랫부리가 너무 길어지므로 관찰하여 다듬어 주도록 한다.

**70일령 경에 산란계 케이지에 올리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케이지에 일찍 올리면 평사보다 살(脂肪)이 많이 찌서 탈항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고 그 보다 더욱 나쁜 것은 산란 케이지에 수용되면서 옆의 산란계사에서 나오는 점등 불빛을 그대로 받고 자란다는 점이다. 달빛이 너무 밝아도 나쁘다는 건데, 자라는 닭에다가 알 낳는 닭의 점등을 그대로 실시해준 셈이 되었으니, 그 닭은 수란관이 채여 물기도 전에 알을 낳게 되어 탈항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 \* 점등에 좀더 유의를

우리의 개방계사 여전에서는 사실상 병아리에게 적합한 점등프로그램(「육성중에는 해길이가 길어지는 상태하에서 키우지 말것」—이것은 육성계에 있어서는 지상의 관리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원칙을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시해 버리고 있다)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다행히 4월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부화된 병아리는 감소되는 일조 시간하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적(最適)의 점등관리를 받는 셈이 되어, 초산도 적당한 시기에 하고 난중속도도 정상이어서 탈항의 문제는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4~9월중순 사이의 병아리 일지라도 70일령 이후에 산란케이지에 수용되어 옆의 산란계사 점등 불빛을 받으며 자라면 너무 조산하게 된다.

10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부화된 병아리는 대추기에 증가되는 해길이 상태에서 사육되므로 성성숙이 촉진되어 체성숙은 되기도 전에 초란을 낳기 시작—결국 고질적인 탈항이 증가한다. 외국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창계사를 짓고 육성중(특히 70일령 이후)의 점등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개방계사의 실정에선 육성중에 점감점등은 못하고 일정점등(그 닭의 20주령시의 해길이를 알아서 70일령부터 “20주령일조시간”으로 계속 감등하는 것)을 택하는 도리 밖엔 없다.

### \* 계사의 밝기도 중요하다

병아리때부터 140일령까지 사이의 계사를 밝게 하여 주어야 할 시기는 육추 첫날부터 7일간 뿐이다. 즉 육성시기에는 계사를 밝게 하여 주지 않도록 한다. 닭은 생리적으로 밝은 불빛 아래서는 신경이 예민하여지고 쪼는 습성이 생기기 쉬우며 반대로 어두우면 온순하며 행동이 둔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계사내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닭을 더욱 신경질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육성계사를 어둡게 하여 온순한 닭으로 키우는 것이 좋겠다. 육성사의 전구는 30와트 짜리를 사용한다.

140일령이 되어 초산을 한다고 해서 곧 60와트 전구로 갈아끼우는 것은 계사를 너무 밝게 하여 탈항을 증가시킬지는 모른다. 약 27~28주령부터 60와트 전구로 갈아끼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들어 140일령시의 일조시간이 10시간 밖에 안된다고 할 때 곧바로 14시간으로 증가시킨다면, 점등을 했다 안했다 하면 홀몬분비의 부조(不調), 배란의 부조를 초래하여 쌍알을 증가시키고, 쌍알의 증가는 탈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주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증가를 피하고 매일 점동시간을 엄격히 지킨다. 그러려면 자동점동기(Auto timer)가 꼭 필요해진다.

**\* 육성중에 제한급이가 권장된다**

탈항의 근본원인이 복부와 수관관, 항문주위에 지방층이 형성되어 신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육성중 제한급이가 새로운 사양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제한급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7주령부터 13주령까지 중추사료급여, 14주령부터 20주령까지(혹은 산란 20%까지)는 대추사료를 급여한다. 사료제한량은 7주령부터 18주령까지 충분히 먹는량의 15~20%를 제한하고 19주령부터는 충분한 양을 무제한 급여한다. 어느 양계가는 18주령까지 수당 80gm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을 하여 성공한 예도 있다. 제한급이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나쁜 대추사료를 가지고 제한급이를 하면 닭을 버릴 염려가 있고, 제한급이 중에는 닭의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닭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제한급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한급이의 목표는 정상발육을 억제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골격의 발달은 정상적으로 시켜 주면서 살찌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닭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면 급여량을 증가시키고 영양제를 보충하여 줄 필요가 생긴다.

겨울에 육성을 할 때에는 춥기 때문에 닭이 사료를 많이 요구하고, 또한 관리자는 먹는대로 사료를 무제한 급여하는 잘못을 범하여, 닭을 너무 살찌게 하기 쉬운데, 이러한 닭에서 탈항계가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겨울 육성계에서는 그 닭의 표준체중(제한급이한 적정체중)을 오바하지 않도록 제한급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여름철 육성하는 닭에서는 제한급이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육성중에 제한급이 육성을 한 것과 충분한급이를 한 것과 산란기간중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가를 영국 밀포드 능력검정 성적을 예로 검토하여 보기 바란다.

제5회 영국 밀포드능력검정 73/74 케이지사육

육성중충분급이구	육성중 폐사율	18주령 체중	50% 산란일령	헨하우스 산란수	73-76주간 HD 산란율	특란율 %	산란기율	수익순위
계 중 A	0.0	1147	159	283.8	68.6	23.3	10.4	2
"	2.7	1283	155	285.1	65.7	34.7	10.4	1
" C	1.3	1306	161	270.5	61.9	33.8	12.5	3
평균	1.3	1245	158	279.8	65.4	30.6	11.1	
육성중제한급이구						개 수		
계 중 A	0.67	952	161	287.9	69.9	76	7.6	—
"	4.0	1016	159	284.1	67.7	102.6	13.9	—
" C	1.3	1052	161	284.6	64.7	96.5	5.6	—
평균	2.0	1006	160	285	67.4	92	9.03	

※ 특란 61.7gm이상, 48수식 3반복 시험

위의 능력검정 성적을 보면 육성중 제한급이구가 산란수, 산란지속성, 난중, 생존율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한급이구가 산란기간 중에 폐사율이 적은 것은 지방제로 인한 폐사가 적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부언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본태적인 탈항보다도 카니발리즘에 의해 초래되는 탈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카니발리즘을 일으킬만한 요인——육성중 밀사, 환기불량,

너무 밝은 계사, 너무 밝은 점등광도, 영양불균형의 사료, 고온다습한 계사공기, 외부기생충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탈항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양관리 요점들을 다시 요약하면,

1. 육추초기를 제외한 전 육성기간은 어두운에서 육추육성할 것.
2. 중, 대추기에 콕시듐, 회충, 설사병 등의 심한 감염을 피할 것. 초산전 2회이상의 회충구제를 필할 것.
3. 더비킹은 4주령 이전과 16주령 이전에 2번 실시할 것.
4. 가급적 산란케이지에 늦게 올릴 것.

5. 산란계사 옆에서 산란계 점등 불빛을 받으며 육성하지 말 것.

6. 중, 대추기간 중에 제한급이를 신중히 실시할 것.

7. 초산시 점등을 일시에 증가하지 말고, 점등 소등시간을 엄중 지킬 것. 점등광도, 계사안을 밝게 하지 않는다.

8. 초산시 설사병에 걸리면 탈항이 증가하므로 하리 예방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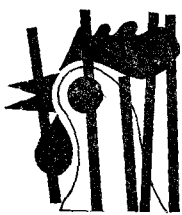
9. 탈항과 카니발리즘이 시작되면, 전등을 높히 매어달고, 30와트 전구로 교체할 것. 산란하는 닭일지라도 부리를 약간만 지지면 카니발리즘 방지에 효과적일 때가 많다. ■

● 월간양계는 양계인을 위한 가장 유익한 월간지입니다. 월간양계를 읽어 여러분 경영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보십시오.

월간양계를 구독하시려는 분은 1년분 구독회비 2,000원을 가까운 우체국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대한양계협회의 대체구좌는 519272번입니다.

○ 서울 중구 양동 44-28 ☎ 3571~2 대한양계협회



## 中 · 大 雛 分 讓

淸淨環境에서 完璧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安全하게 輸送.

有名品種 - 하이섹스, 바브콕, 세이바

育成方法 - 初生雛時 삿갓식평사 中雛時 노천케이지

防疫計劃 - 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發育度 - 品種別표준치중보증

輸送 - 수송상자, 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중

삼정농원

대표 이오형

연락처 : 양지가축약국 56-1938

경기도광주군오포면양벌 1리261

성 약 원 55-3177